

NEWS LETTER : WILLING N DEALING

NO. 26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박지훈 작가의 개인전 <뜨거운 공기·차가운 악기들>을 진행한다. 작가는 금속을 주재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오브제를 제작하는데, 언뜻 그의 작품은 실험실의 연구행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재료의 차가운 속성과 작품이 보여주는 반복적 움직임 때문에 마치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마음을 정화하는 등의 정신적 특성을 갖는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에 반복적인 행위를 지속하면, 성취의 기쁨과 함께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작가는 육체와 정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마찰을 가해 금속을 다듬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작가에게 곧 성찰과 치유의 시간이며, 관객도 그의 작품을 통해 비슷한 감각을 전달받을 수 있기를 의도하고 있다.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10여 점의 작업은 연마, 조립, 용접 등의 철의 속성을 다루는 기법을 통해 구축된다. 동시에 이들을 관통하는 심리적·치유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현상이 대비되면서 그동안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치유 행위의 다양한 과정을 제시하게 된다.

작가 노트

이번 전시의 타이틀 <뜨거운 공기·차가운 악기들>은 전시 공간의 전반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다. 뜨거운 공기는 개별 작업으로부터 발산되는 느낌 혹은 분위기를, 차가운 악기는 작품의 재료로서의 금속이 만들어 내는 감정적 온도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사실 현용으로서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여기저기에 혼재되어 있다.

분류를 정교하게 정리하지 못한 '부실'의 원인에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시작되며 여기에 동원되어야 할 논리적 사유와 개념적 명료함이 뒤늦게 합류하거나 혹은 아예 합류에 실패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현대미술의 의제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본다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너그러운 시선으로는 '다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경계하는 것은 언어와 '불 것' 간의 거리이고 명료함 혹은 모호함이라는 향신료가 미술에 가하는 '양'이 만들어 내는 가치의 문제이다. "이것은 A이다." 혹은 이것은 "A이거나 B일 수도 있다"라는 명제 둘 다 자칫 협소하고 비좁은 언어의 틀 안에 미술을 가둘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의미를 규정해야겠다는 강박으로부터 잠시 나태해지고 긴 호흡으로 인간으로서의 작가, 그 인간이 빚어낸 것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을 조금씩 대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풍성하게 작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은 대부분 나 자신의 결핍과 장애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런 구질하고 신평(新派)스러운 주제를 미술이라는 장치가 친절하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개별적이고 특이한 지점 위에 위치시키고 그 노력이 좁고 긴 소통이라는 통로에서 사람들과 만나고자 노력한다.

PREVIEW :

박지훈 개인전 :
뜨거운 공기 차가운 악기들

2018. 7. 13 (fri) - 8. 3 (fri)

Park Jihoon
Solo Exhibition :
Hot Air,
Cold Instruments

오프닝 리셉션
2018. 7. 13 17:00

아티스트 토크
2018. 7. 21 16:00



작업의 재료로 금속이 주로 쓰인다. '차가운'이라는 수식이 쓰인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금속을 재료로 쓰게 되었던 인연은 학창시절의 좋은 기억과 자기치유라는 공상스러움에서 출발한다. 방향의 시기에 별 뚜렷한 목적이 없이 금속을 자르고 갈고 붙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시간이 있었고 이때는 철(steel)을 주로 다루었는데 어느덧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황동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금속 대부분을 두루 섭렵하게 되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각각의 금속들은 다른 목적/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금속들이 만들어 내는 감정도 매우 다르다. 나는 이것들을 그때그때 용도에 부합하게 선택하고 가 공한다. 금속은 다루기에 녹록한 미술의 재료는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목적에 맞게 빚어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으며 꽤 믿음직하다. 이 재료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혹은 변하더라도 매력적으로 변신하며 정확하게 제어되어, 나의 인간적 불완전함을 적절히 단단하게 보강해준다.

나의 작업은 상흔이고 부상자이며 수술 도구이며 치료제이다. 그것들은 희극이면서 비극이며 각성제이면서 수면제이고 차가우면서 동시에 뜨겁다. 이 파라독스적 항(項)은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병치를 넘어 교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들의 합(合)이며 내 작업의 스테이트먼트이고 언어관이다. 대척점에서의 두 항을 인위적으로 겹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일상언어의 체계가 잠시 부서지면서 새로운 기호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한다. 혹자들은 작업 전반에 드러나는 무거운 질료와 자전적 독백 때문에 자칫 심각하고 무겁게 전시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내 작업은 유머와 농담을 지향한다. 그 진지하지 않은 가벼움들이 온전히 전달되는 순간 비로소 나의 경계심은 뜨거운 공기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 르겠다.

NEWS LETTER : WILLING N DEALING

NO. 26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2018년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전시 <고체-액체 임계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7년 오사카에 위치한 전시 기관 CAS와 공동 기획의 한 일 교류 전시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일본 교류 전시이다. 올해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일본 작가 7인이 제시하는 각 작업에 대한 단상과 실제로부터 한국 작가 7인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전시를 보여준다.

전시 제목 <고체-액체 임계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에서 상징하는 것처럼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들이 또 다른 하나로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환경, 방법론을 찾는 행위가 보인다. 시간적 순서를 따르거나 동시적이거나 교차적이기도 한 다양한 작업 방식은 한국과 일본 작가 간의 임계점을 찾아보는 노력과도 맞물려있다. 우선 진행되는 일본 작가의 작품은 고유의 작업 형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작업 속에서 임계점을 지정해보기도 하며, 한국 작가는 이들의 작품과 공명할 수 있는 임계점을 찾아보며 이들과의 교류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PREVIEW :

고체-액체 임계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18. 8. 10 (fri) - 8. 26 (sun)

Solid-Liquid
Critical Point
Has Not Yet Been
Found

오프닝 리셉션
2018. 8. 10 18:00

퍼포먼스:카나자와 켄이치
2018. 8. 10 18:30

참여 작가 후나다 카요
히라마츠 노부유키
카나자와 켄이치
카와나카 마사히로
나카마에 히로후미
오노 히로시
사사오카 타카시
백정기
최승훈
한정림
홍범
김시연
박지훈
강석호

공동기획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CAS (Contemporary Art and Spirit)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sahi Shimbin Foundation



sunday is monday,
monday is sunday

로와정 개인전 2018. 5. 4 - 24

만담 : 2018. 5. 5 오후 4시 (사진①)

퍼포먼스 : 2018. 5. 15 오후 7시

옥션&파티 : 2018. 5. 19 오후 4시 (사진②)

얼핏 창백한 화이트 큐브 속의 미니멀리즘처럼 보였지만 전시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여러 층위의 과정들이 존재했다. 나는 이 과정을 '접촉'으로 묘사하고 싶다. 작가는 매일같이 공간, 그리고 작품들과 접촉했으며, 접촉에 따른 작품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한번 전시장을 방문했던 관객들과의 재회를 자극했다. 전시장에 배치된 사각 스펀지들은 관객과의 접촉을 기다리며, 그들에 의해 기꺼이 자신의 배치와 용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만담>, <움직임>은 갤러리 안에서 작가와 관객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다분히 촉각적이었다. 작가는 전시 속에서 관객과 작품이 제작되는 프로세스를 공유하였다. 어쩌면 갤러리를 스쳐 지나간 관객들의 시선과 호흡은 작품에 변화(혹은 변형)를 가져올 중요한 변수였을지도 모른다. (글. 맹성규 인턴)



제11회 PT&CRITIC:
맴도는 것

김민조, 전다빈, 2018. 6. 15 - 7. 5

오프닝리셉션 : 2018. 6. 16 오후 5시 (사진①)

PT&CRITIC : 2018. 6.30 (사진②)

참여패널 : 강석호, 전현선, 한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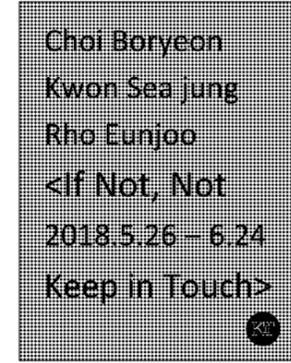
김민조 작가는 눈으로 본 장면이나 사물을 자신만의 상상력과 함께 유동적인 붓놀림으로 표현한다. 전다빈 작가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이용하면서 추상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두 작가는 어렵직잡은 가능하나 평범하지 않은 장면을 건네고 자신의 감정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친절히 나누려 하지 않는다. 이는 불친절하거나 우연에 기댄 채 고집을 내세우며 벽에 그림을 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객이 조금 더 머물며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훗날 마주칠 우연을 즐기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며 회화에 대한 실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대의 현실과 직면해 줄 다리기를 하고 있다지만 종이 위에서의 이들은 멋진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그들의 곡예가 기대된다.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강석호 작가는 수예노 339의 단체전 <Dialogue>에 참여하였습니다. 6.15부터 7.29까지



호상군 작가는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개인전 <친숙하고도 밀접한>을 가졌습니다. 5.24부터 6.23까지



노은주 작가는 킵인더치의 단체전 <If Not, Not Keep in Touch>에 참여하였습니다. 5.26부터 6.24까지



전병구 작가는 OCI 미술관에서 개인전 <Letters>를 가졌습니다. 6.7부터 7.7까지



이정형 작가는 송은아트큐브에서 단체전 <Summer Love>에 참여하였습니다. 6.22부터 8.11까지

허은경 작가는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 <Botanical Garden>을 가졌습니다. 5. 10부터 6. 24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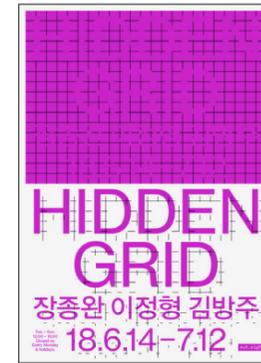
박진우 작가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하는 <2018 서울 포커스>행동을 위한 디자인>에 도큐멘테이션으로 참여했습니다.



박경률 작가는 LUNGLEY 갤러리에서 개인전 <On Evenness>를 가졌습니다. 6.8부터 6.30까지



홍순명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보이스리스: 일곱바다를 비추는 별>에 참여합니다. 6.26부터 8.15까지



장종완, 이정형 작가는 아웃사이드의 단체전 <Hidden Grid>에 참여하였습니다. 6.14부터 8.15까지



장성은 작가는 부산에 위치한 BMW Photo Space에서 개인전 <나는 묘사를 삼킨다>를 가집니다. 8. 13부터 10. 20까지



홍승해 작가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 G4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그가 달려왔다, he ran to> 라이브 퍼포먼스의 무대디자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2부터 6.3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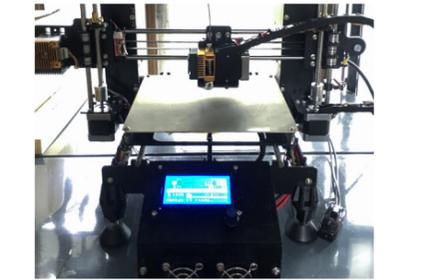


심아빈, 유영진 작가는 남서울 예술인마을 오픈스튜디오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서울 예술인마을은 2015년부터 3년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과 작가 미술장터를 함께 개최해온 예술인 공동체입니다.

최정윤 협력 큐레이터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 원래도 긴 머리는 해본 적이 없지만 가장 짧은 길이의 커트머리로 변신했다. 원래도 꾸미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지만 더욱 빨리 외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김인선 디렉터도 머리를 짧게 잘랐다. 원래도 그리 긴머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짧은 길이의 단발머리로 변신했다. 원래도 꾸미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않지만 더욱 빨리 외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황수 코디의 학부 졸업 전(4년 전) চে중은 60대를 맴돌고 가벼운 몸놀림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요새 그의 복부를 본 어머니는 우려를 넘어 노하셨다고 한다. 네이버 포탈의 비만도 계산기에서 그의 신체질량지수(BMI)는 23.41(과체중)라고 말하고 있다.



맹성규 인턴은 최근 DIY로 제작하고 업그레이드까지 마친 그의 3D 프린터를 뿌듯하게 자랑하였다. 사실 기성품을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하였으리라는 그의 씩씩한 미소와 함께...



주소 : 서울서초구방배동 777-20번지 2층
전화 : 02-797-7893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 한황수, 맹성규
감수 : 김인선
발행일 : 2018년 7월 11일

www.willingndealing.com
www.facebook.com/spacewillingndealing
willingndealing02@gmail.com